

점심시간이 끝난 회사 식당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된다.

600명이 사용한 식판과 그릇이 식기세척기 앞으로 끝없이 밀려온다. 나는 그 앞에서 무거운 식판을 받아 정리한다. 뜨거운 물이 튀고, 음식물이 손에 묻어도 손을 멈출 수 없다. 하루를 마치면 허리와 어깨는 굳어 있고, 손끝에는 피로가 남는다.

‘설거지는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집에서는 한 번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 퇴근하면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고, 싱크대에 남은 그릇은 늘 아내의 몫이라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상사가 내게 물었다.

“집에서도 설거지를 같이 합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러자 상사는 웃으며 말했다.

“갑질은 여기서 하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도 하는구먼.”

순간 웃어넘겼지만, 그 말은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가장 힘든 자리를 맡으면서도 왜 집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힘든 일은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말없이 싱크대 앞에 섰다.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하자 회사에서 하루 종일 받던 식판들이 떠올랐다. 기름 묻은 프라이팬 하나를 닦는 일도 쉽지 않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그릇을 씻는 일도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그제야 아내의 하루가 보였다.

며칠 후, 설거지를 마친 내게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같이 해주니까 저녁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내 마음에는 큰 울림으로 남았다.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삶이었다.

지금도 회사에서는 600명의 식판을 받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의 식기를 씻는다.

회사에서는 동료를 위해,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예전에는 설거지를 아내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가족의 일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끝내고 물기를 닦아낸 어느 날, 깨끗해진 싱크대를 바라보다 문득 웃음이 났다.

그날 깨끗해진 것은 그릇만이 아니었다.

가족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함께 맑아지고 있었다.